

韓·中 고전문학 속의 여성과 송사(訟事)*

이경미**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송사(訟事)를 당하는 여성 |
| 2. 송사(訟事)를 제기하는 여성 | 1) 사회·윤리적 차원의 범죄 |
| 1) 사회·윤리적 동기 | 2) 개인적 차원의 범죄 |
| 2) 개인적 동기 | 4. 나가며 |

【초록】

본고는 韓·中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송사를 제기하거나 또한 송사를 당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송사를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효녀, 열부, 현모양처인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 사회적 칭송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송사를 통한 법의 엄정성보다 법의 윤리의식이 우위에 있었던 고대 韓·中 봉건사회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한 의도와 행실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송사라는 법적인 절차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통로이긴 하나 남존여비의 봉건사회에서 여성에게 그 기회가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또 다른 가부장적 기준으로 여성을 이중으로 평가했던 당시 사회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원혼(冤魂)이 되어서까지 재심(再審)을 통하여 그녀들의 억울함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해결 받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명예회복 및 내적 존엄성까지도 회복하고, 공개적인 법집행을 통한 처벌로 사회질서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키워드】 여성(女性), 송사(訟事), 한중(韓中), 고전문학(古典文學), 비교문학(比較文學)

* 이 논문은 2019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1. 들어가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¹⁾

서양문학과 문화의 근간이 되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왕은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참 모성을 근거로 친모를 밝혀냄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판결과 지혜의 왕으로 칭송 받게 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쟁은 늘 있어왔고, 그로 인한 소송과 재판은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었다. 특히 동서양 봉건가부장 사회 속에서 여성은 주로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남성에 비해 자신의 몸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으므로 신체적,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들에게 소송이라는 법률제도는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소송을 통해 여성들이 악인에게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구하기도 하고, 한편 자신을 배신한 악인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재판은 여성들을 불행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기도 하였다. 십자군 전쟁 실패 등의 가부장사회의 실패를 여성들에게 뒤집어씌움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중세시대의 수많은 마녀재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가 재판정에서 섰을 때, 영국 측에 의해 조작된 신성모독, 배교 및 이단, 유혈선동이라는 죄명과 잘못된 재판은 결국 그녀를 마녀로 규정짓게 만들었고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형대에 올려졌다.

이처럼 그 시대의 송사(訟事)제도로 여성의 삶이 구체받거나 혹은 파멸되는 현상은 문학작품 속에서 종종 보여지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문학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송사를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즉 송사의 당사자인 여성이 효녀, 열부, 현모양처인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 사회적 칭송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학작품 또한 고대 유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 의인은 보상받고, 악인은 처벌받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결말은 그녀의 선한 의도와 행실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는 소송이라는 법적인 제도로 사회정의를 구현되었지만 이를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남존여비의 봉건사회라는 굴레가 엄연히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韓·中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 여주인공들의 송사과정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을 찾아 크게 ‘송사를 제기하는 여성’, ‘송사를 당하는 여성’ 두 장으로 나누고, 그 송사의 과정과 결말 그리고 그 속에 반영된 당시의 여성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박효랑전』, 『김씨남정기』, 『홍씨열녀전』, 『장화홍련전』, 『은애전』, 『옥낭자전』 등을,

1) 『구약성경·열왕기상』 3장 22~27절.

중국의 경우에는 『搜神記』, 『竇娥冤』, 『灰欄記』, 『胡蝶夢』, 『三言』, 『聊齋志異』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韓·中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송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송사(訟事)를 제기하는 여성

韓·中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송사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고대봉건사회의 사회·윤리적 근간인 효와 열의 가치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송사를 제기하는 자가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장려하였다. 반면 사적인 연정(戀情)이나 사감(私感)에 의한 복수에 기한 송사의 제기에 대하여는 현세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 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자들이 과멸하는 어두운 결말이 주어지긴 하나, 한편으로는 해원(解冤)의 중요한 수단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성이 송사를 제기하게 되는 동기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로 사회·윤리적 동기에 의한 소송제기가 다수를 차지하나, 개인적 동기로 송사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개인적 동기에 의한 송사는 동기가 비록 사(私)적인 영역에서 출발하나 그 결과는 공(公)적인 영역으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여성의 송사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윤리적 동기

(1) 효(孝)

유·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동양사회에서는 “신체와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님한테서 받은 것이라, 감히 다치거나 상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요, 자신을 세우고 도덕을 수행하여 후세에 명망을 날림으로써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함이 효의 완성이다.”²⁾라는 『효경』의 가르침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원수는 한 하늘 아래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는 한 나라에 살지 않으며, 친족의 원수는 한 동네에 살지 않는다.”³⁾ 라는 덕목에 근거하여 자식으로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은 당연하고 권장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韓·中 고대 문학 작품 속에도 송사제도를 통해서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 효를 실천한 여성들이 있었다.

명의 풍몽룡(馮夢龍)의 『醒世恒言·蔡瑞虹忍辱報仇』에서 임지로 향하던 채서홍과 그녀의 부모는 진로사(陳老四)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모두 살해되고, 자신은 강간당하고 목을 졸려 살해당하나 구사일생으로 깨어난다, 이후 채서홍은 사창가에 팔아넘겨져 여러 남자를 전전하며, 남자들을 유혹해 사기를 치는 삶을 산다. 그러나 우연히 주원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도망간다. 어느 날 뱃길에서 진로사를 다시 보게 되자, 주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 채

2) “身體髮膚，受之父母。弗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

3) “父母之仇，不同戴天；兄弟之仇，不同國；九族之仇，不同鄉黨。”『春秋公羊傳』莊公4年の疏。

서흥은 진로사와 그의 일당들 모두 ‘극률에 처하기를 청하고’, 도둑일당들은 사형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효심이 칭송받아야 할 그 순간, 가위로 목을 찢러 자결한다. 유서에는 부모의 원한을 갚는다는 그 목적 하나로 긴 세월동안 죽지 못하고 살아 왔지만, 결국 여성으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주는 고통으로 죽음을 택하게 됨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다.

“남자의 덕은 의리에 있고, 여자의 덕은 정절에 있나이다.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 내가 (치욕을)참으면서 죽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치욕은 작은 일이요,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 첩은 원수를 갚고 뜻을 이루었나이다! 어찌 정절을 잃고 살기를 바라며, 가문에 치욕을 남기겠나이까, 첩은 곧 죽을 것입니다.”⁴⁾

작가는 그녀의 효성과 절개를 높이 평가하면서 ‘고금에 비할 자가 없다’고 칭송하며, 황제도 절효방(節孝坊)을 하사한다.⁵⁾ 어렵게 효를 실천하였지만, 또 다른 가부장적 가치기준인 ‘순결’, ‘열’은 그녀를 가정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만다.

조선 후기의 『박효랑전』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송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두 효녀가 등장한다. 현감 박경여가 선비 박수하의 선영에 자기 할아버지의 관을 투장하자, 박수하는 송사를 제기한다. 그러나 부패한 관리에 의해 소송은 패하고, 기고만장해진 박경여는 박수하의 선산을 더욱 마음대로 한다, 박수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경여의 종들이 작업을 못하도록 꾸짖는다. 박경여는 친척인 감찰사에게 무고하여, 그를 하옥시켜서 고문으로 죽게 만든다. 박수하의 큰 딸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피 묻은 손으로 무덤을 헤쳐’ 박경여의 조부의 관을 꺼내어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박경여의 살인죄와 관을 불태운 자신의 죄를 같이 처벌하라고 울며 호소하지만, 관아에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얼마 후 큰 딸마저 박경여의 무리들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둘째딸이 다시 관아에 호소하지만, 신원되지 못하자 결국 상경하여 대신들의 수레를 붙잡고 호소한다. 이러한 탄원으로 안핵사의 재조사가 시작되고, 이윽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큰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박경여 측에 의한 살인임을 밝힌다. 그리고 유생 7,000여명이 상소를 하여, 박씨의 딸은 정려(旌閭)를 받는다.

채서흥과 박씨의 두 딸들의 복수의 동기가 비록 ‘효(孝)’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녀들은 ‘부정(不貞)’하거나, ‘분묘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여인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열녀(烈女)’로 칭송되고 있으며 의열(義烈)로서 사회적 칭송까지 받는다. 그러한 현상은 존속에 대한 모욕이나 구타, 살해행위 등을 엄벌에 처하고, 부모의 원수를 현장에서 살해하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효’를 봉건사회 최고규범으로 간주했었던 당시 사회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⁶⁾ 한편 그 이면에는 효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여성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희생의식도 깔려있다.⁷⁾ 어렵게 소송을 통하여 효의 구현이라는 목적은 완성했지만, 그녀들의

4) “男德在義, 女德在節. 女而不節, 行禽何別! … 然而隱忍不死者, 以爲一人之廉耻小, 閨門之仇怨大. … 妾之仇已雪而志以遂矣! 失節貪生, 貽玷閨閥, 妾且就死.” 馮夢龍, 『蔡瑞虹忍辱報仇』, 『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5) 장연호, 「중한 송사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006, p.102.

6) 부모와 조부모를 죽인 사람을 자손된 자가 임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장 80에 처하되, 부모와 조부모를 살해할 당시에 즉시 죽인 경우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父祖被毆』, 『大明律』

결말은 자살, 타살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다. 이것은 ‘강한 여성’, ‘순결하지 못한 여성’, ‘범죄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가부장제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⁸⁾

(2) 열(烈)

고대 韓·中 가부장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의리는 ‘양처(良妻)’로서 생전에도 지켜야 할 덕목이었지만, 죽어서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이 사후(死後), 원혼(冤魂)의 모습이 되어서도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송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송사제도를 통하여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거나, 위협에 처한 남편을 구해냄으로 ‘열’을 구현한 여성들이 있었다.

명의 풍몽룡의 『警世通言·蘇知縣羅衫再合』의 소운(蘇雲)의 아내 정씨(鄭氏)는 남편과 임지로 가는 중, 도적 서능(徐能)의 무리들을 만난다. 재물과 아이마저 뺏기고, 정씨는 남편과 함께 강에 던져진다. 정씨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지만, 비통한 마음에 결국 출가한다. 19년 세월이 흐른 뒤, 정씨는 서능을 남편살인범으로 고소한다. 공교롭게도 재판을 맡은 판관은 정씨의 잃어버린 아들 서계조(徐繼祖)였다. 서계조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도적 서능이 비록 자신을 길러준 양부이지만 그와 일당들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법 앞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함을 작품을 통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조선 후기 한문소설 『김씨남정기』의 김씨도 오랜 시간의 송사를 통해서 결국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다. 시숙의 도움으로 남편을 살해한 노비들을 잡아 관아로 넘기고 그들의 처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노비들은 거짓증언으로 일관하고, 이미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그들을 풀어 줄 핑계만 찾는다. 이에 전주감사 이해조를 찾아가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고, 재심문을 받음으로 그들의 죄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감사가 죽고, 또 새로운 감사가 오자 뇌물로 다시 석방될 처지에 놓이자, 은장도는 물론 엇은머리까지 팔아 연명하면서 다시 소송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던 중 암행어사가 인근 마을을 순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어사는 노비들에게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고, 곤장형으로 다스려 피를 토하고 죽게 된다. 작가는 말미에 아래와 같이 김씨부인의 열행을 칭송한다.

“아! 변하지 않는 것이 소나무라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꺾이고, 더할 수 없이 강한 것이 금이지만 불에 들어가면 녹는 법이라네. 김씨의 남편을 위한 절개에 이르러서는 어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꺾일 것이며 궁박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녹겠는가?”⁹⁾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이운선전』의 노씨부인도 원혼의 모습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再審)을 요청한다. 노씨의 미모에 반한 백기삼이 그녀의 남편이 시묘살이 하러 간 사

7) 장연호, 『한중 송사문학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6, p.118.

8)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자살」, 『중국학』, 47집, 2014, p.175.

9) “嗚呼! 不變者, 松過風而摧 莫强者, 金, 入火則消至於金氏爲夫之節, 豈以患難摧折, 豈以窺厄而消鑠哉.” 『金氏南征記』, 이우성 소장본.

이 어둠을 틈타 남편으로 변장하고 그녀와 동침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씨는 아들을 낳는다. 후에 남편이 돌아온 후 자신이 욕을 당한 정황을 알게 되자, 노씨는 수치심에 아이를 죽인 후 자신도 자결한다. 이에 분노한 노씨의 형제들이 노씨의 남편을 ‘살인죄’로 몰아 하옥시킨다. 노씨는 원귀의 모습으로 판관에게 나타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범을 잡아 처형하게 한다. 이에 황제가 노씨의 절행을 칭송하고 정문을 세우고 표창한다. 노씨는 자신의 정절훼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결할 뿐 아니라, 자신이 아이까지도 무참히 죽이고 만다. ‘무고한 회절’임에도 ‘열’의 완성을 위한 속죄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였다. 그리고 비록 원혼의 모습이지만 누명을 쓴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녀의 열(烈)이었기 때문에 칭송받고 표창 받는 결말은 당시 윤리의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 송사를 통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거나, 남편의 억울함을 벗기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판결내용과 상관없이 송사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명의 풍몽룡의 『諭世明言·沈小霞相会出师表』에서 문숙녀(聞淑女)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살해하려는 아졸들과 정면대결을 펼치는 담대하고 강인한 여성이다. 문숙녀는 재상 부자의 모함으로 시아버지와 시숙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막내아들인 자신의 남편 심양(沈襄)마저 죽을 위기에 봉착한다. 임신 3개월의 몸이지만 압송되어가는 남편을 따라나서고, 남편이 압송되는 도중 포졸들이 남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눈치 채고는 관아에 뛰어 들어가 북을 치면서 포졸들이 남편을 죽였다고 고소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후에 남편은 누명을 벗고 벼슬을 하게 되며, 문숙녀와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경우는 남편의 억울함을 송사로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생사의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관아에 뛰어들어 송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편을 구해낸다. 송사의 결과보다는 송사제도 그 자체를 통해서 남편을 위기에서 구한 특이한 경우이다.

2) 개인적 동기

(1) 정념적 복수

가정이 삶의 반경의 전부였던 고대 韓·中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결혼은 여성의 전부였다. 문학 속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한 사랑만큼 자신의 진심이 짓밟혔을 때는 사랑은 지독한 증오로 변하여 사적인 방법, 법적인 수단,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파멸시킨다.

명(明)의 풍몽룡(馮夢龍)의 『警世通言·王嬌鸞百年長恨』의 주정장(周廷章)은 왕교란(王嬌鸞)과의 혼인약속을 저버리고 부귀영화를 위해 다른 여인과 정혼한다. 이에 왕교란은 울며 슬피 하다가, 이내 복수심에 불타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증거가 되는 혼약서와 자신의 억울함을 쓴 시를 관부에 보내어 소송을 제기한다.

“나 왕교란은 명문가의 규수로서 재색을 갖추었으니, 만약 이대로 조용히 죽는다면 그 박정한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가부장사회에 대하여 목을 매어 ‘자살’이라는 최악의 수단으로 순응하고 만다.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사랑을 반대했었던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믿었던 사랑에 대한 절망감, 한 남자만을 섬기고자 하는 열의 실천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 소외된 여성들의 가부장사회에 대한 소리 없는 강한 항변이기도 하였다.¹¹⁾¹²⁾ ‘결혼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왕교란을 배신한 주정장(周廷章)은 혼약서가 증거가 되어 ‘몽둥이로 맞아 죽는’ 처벌을 받는다. 작품을 통해 당시 明代 사회에서 ‘결혼약속’이 당시 중요한 사회규범이었으며, 더구나 혼인서약서를 주고받는 절차가 이미 ‘혼인빙자간음’의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청초 포송령(蒲松齡)의 『聊齋志異·窈氏』의 순진한 두씨집 딸도 세도가 남산복을 사랑하지만, 출산한 아이와 함께 그의 집 문 앞에서 버림받는다. 아기를 안고 밤새도록 애원하다가 결국 같이 얼어 죽는다. 이어 두씨의 딸은 무시무시한 원혼이 되어 그에게 시집오는 여성들을 모두 죽게 만들어 그 어떤 여성도 감히 그에게 시집오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산복을 ‘시신훼손죄’로 관부의 손에 넘기고, 결국 사형을 받게 한다. 작품 말기에 작가 포송령은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관부의 처벌도 받는 남산복의 비참한 최후를 당전기 장방(蔣防)의 『霍小玉傳』에서 궤소옥과의 혼약을 어기고 세력가의 딸과 결혼한 이십랑(李十郎)¹³⁾과 비교하며 그녀들의 복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에당초 상대방을 꼬여 사통했다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도덕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까지 했다가 훗날 의리를 저버린 것이야 말해 무엇 하리? 남산복은 매 맞는 두씨의 딸을 모른 채 했으며, 그녀가 자기 집 문전에서 통곡해도 내버려 두었으니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실인가! 결국 그가 이십랑보다 더 참혹한 벌을 받은 것도 참으로 당연한 노릇이다.”¹⁴⁾

그녀의 원혼이 초현실적인 힘으로 다른 신부들처럼 남산복을 처벌할 수 있으나, 묘를 파헤치는 것이 법에 저촉됨을 알고, 치밀한 계획으로 ‘시신훼손죄’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받게 한다는 대목은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개인적 처벌에서 확대되어 사회적인 범죄로 만들어 죄질의 중요성과 그 책임 그리고 가부장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으로도 볼 수 있다.¹⁵⁾ 이러한 ‘송사’ 과정을 통한 법적 복수는 사적인 복수를 방지하며, 공개적인 사회정의 실현의 효과를

10) “我嬌鸞名門愛女，美貌多才。若噫嘿而死，却便宜了薄情之人。”『警世通言』，三秦出版社，1993.

11) 천대진, 『삼인의 비극작품 시론』,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0.

12) 臧國書, 「〈王嬌鸞百年長恨〉男主人公死亡敘事的審美差異」, 『重慶理工大學學報』, 26卷, 2012年第7期, p.105.

13) 당전기 『궤소옥전』에서 재물과 권력욕으로 소옥을 배신을 함으로 중국고전문학 속의 배신남의 대명사로 칭해지고 있다.

14) “始亂之而終成之，非德也，況誓於初而絕於後乎？撻於室，聽之；哭於門，仍聽之：抑何其忍！而所以報之者，亦比李十郎慘矣而所以報之者，亦比李十郎慘矣！” 김혜경 역, 『요재지이·두씨』, 민음사, 2002.

15)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 38집, 2011, p.191.

얻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초현실적인 복수와 사적복수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법집행을 통한 처벌과 함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인륜적 도의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악인의 죄과가 만인에게 공개되고, 악인에게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갑절로 가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송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¹⁷⁾ 이것은 ‘사적 복수의 공형벌화(from personal revenge to public punishment)’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송사를 제기한 여성은 결과적으로 외적인 명예회복 및 내적 존엄성까지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2) 명예회복 - 살인, 부정누명

원잡극 관한경의 『竇娥冤』의 가난한 서생의 딸 두아는 어린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과부 채노파네집의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된다. 얼마 뒤 자신도 역시 과부가 되어 채노파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 채노파가 돌팔이 의사 새노의에게 살해되려는 순간, 마침 길 가던 장노아 부자에 의해 발견되어 채노파는 목숨을 구한다. 이에 장노아 부자는 채노파 집에 들어가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자신들에게 개가(改嫁)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두아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장노아는 채노파를 독살하고 두아를 차지하려 한다. 하지만 뜻밖에 자신의 아버지가 독극물을 먹고 죽자, 장노아는 두아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고, 그녀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장노아 : 두아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독살했으니 관가에 가서 해결할 테냐? 우리끼리 해결할 테냐?¹⁸⁾

두아 : 난 당신의 아버지를 독살하지 않았으니, 기꺼이 당신과 함께 관가로 가리다. ¹⁹⁾

자진해서 법정에 온 두아는 ‘밝은 거울 높이 내걸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법에 희망을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뇌물을 받은 도율의 무지함과 고문으로부터 시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거짓자백을 하고 참수되고 만다. 그러나 죽기 직전의 “내가 죽은 후 피가 저 높이 걸려 있는 흰 비단 위로 튄 것이며, 유월에 눈이 내리고, 3년 동안 크게 가물 것이다.”라는 세 가지 서원이 이루어짐으로 그녀의 억울함과 결백함이 증명된다. 그리고 그녀의 원혼은 관리가 된 친아버지 두친장에게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 의해 열린 재심(再審)으로 결국 ‘살인죄’의 누명을 벗고, 장노아는 처형된다.

조선 후기 『장화홍련전』의 장화도 전처의 자식들을 죽이고,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계모의 음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계모 허씨는 ‘큰 쥐 한 마리를 취하여 피를 발라’ 전처소생인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두고는 마치 낙태한 듯이 꾸민다. 그리고 아버지 배좌

16) 김명구·윤애선, 「복수의 다원화」, 『중국어문논총』, 35, 2005, p.242.

17) 오문희, 『삼언의 복수』, 명지대학 석사논문, 2006, p.117.

18) [張驢兒云] “竇娥, 你藥殺了俺老子, 你要官休? 要私休?” 한국중국희곡연구회 편역, 『중국희곡선집』, 學古房, 1995.

19) [正旦云] “我又不曾藥死你老子, 情願和你見官去來.” 『중국희곡선집』, 앞의 책.

수를 설득하여 ‘부정(不貞)’이라는 죄명으로 장쇠를 통해 물에 빠져 죽이도록 지시한다. 흥련도 언니 장화를 따라 물에 뛰어든다. 계모에 의한 자신들의 죽음이 너무도 억울한 장화와 흥련은 부임하는 부사들에게 원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부임하는 부사들은 모두 원귀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죽고, 신임부사 정동우는 ‘법을 밝혀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정부사는 배좌수 부처를 잡아 문초하지만 그들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서, 달리 처벌할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정부사는 장화흥련의 지시에 따라 ‘귀의 배를 갈라’ 증거를 확보한다. 정부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 죄인은 남과 다르니, 내 임의로 처리 못 하겠다’라고 판단하여 감영에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장계한다. 이윽고 임금의 아래와 같이 하교한다.

“흥녀의 죄상은 만만불측하니, 흥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쇠는 교하여 죽이고 장화 형제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버지는 방송하라.”²⁰⁾

이 유형의 여성들은 현실세계에서는 잘못된 판결 혹은 오해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원귀가 되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불공정한 판단과 판결로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여성들이 결국 원혼(冤魂)이 되어 공정한 송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당시 사법제도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²¹⁾ 또한 그녀들이 초현실적인 힘으로 단번에 복수가 가능했겠지만, 현실세계의 송사제도를 통하여 그녀들의 억울함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동정 받고, 또 해결됨으로 위로받는 데 의의가 있다고도 보여진다. 당시 현실사회에서 잘못된 판결로 고통 받았던 여성들에게 문학은 그들의 한을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이 송사를 제기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여성이 송사를 제기하는 동기가 사회윤리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남존여비의 봉건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송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관대하고 송사에의 접근도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송사제기의 목적이 다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경우에는 현세적인 판결절차에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장면도 일부 등장하며, 여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때로는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개인적인 목적, 즉 신원(伸冤)의 절차로서 공적인 송사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내세로부터의 청구에 의한 재심개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법익의 사회적 법익화’ 작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회로를 보게 된다.

3. 송사(訟事)를 당하는 여성

여성이 송사를 당하는 경우는 불효(不孝)와 부정(不貞)이 대표적이다. 먼저 ‘효’라는 가치가

20) 김규태 편, ‘장화흥련’, 『韓國古典文學大系』, 명문당, 1991.

21) 최은영, 「『三言』 공안소설의 서사화 과정」,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05, p.86.

여성에게 부여될 때는 자신의 친정부모보다는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효’가 강조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이 지켜야 할 ‘효’ 규범이 봉건적 가족제도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정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여성 자신이 정절을 버리는 궤절이 있는가 하면 궤절로 모함당하는 경우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정절이 짓밟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절은 필연적으로 당사자 외에 ‘공범구조’(共犯構造)를 갖고 있기에 그 전개와 결말이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다.

1) 사회·윤리적 차원의 범죄

(1) 불효(不孝)

봉건유교사회의 가장 큰 윤리 덕목은 ‘효’였다. 성리학적 윤리관을 법제화한 『대명률직해』에도 모반(謀反)등의 ‘열 가지의 가장 악한 범죄(十惡)’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효 또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있었다.²²⁾ 한편 불교에서도 불효를 사후에 5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벗어 날 수 없는 이른바 ‘오역(五逆)’죄의 으뜸으로 꼽고 있었다.²³⁾ 이러한 유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고대 韓·中사회와 문학작품 속에서 “효는 모든 덕행의 처음”이고 “불효는 모든 죄악 중 으뜸”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부모살해’는 말할 필요 없이 극형에 처해졌으며, ‘불효’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며 노력하였고, 심지어 원혼의 모습으로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 간보(干寶)의 『搜神記·東海孝婦』에는 젊은 효부가 시어머니의 재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효부가 재가하지도 못하고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딸이 효부를 ‘시모살인자’로 고발한다. 효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고문을 하면서 혹독하게 다스리자’, 거짓자백을 하고 만다. 우공(于公)이 그녀의 효심을 알고 결백을 변론하였으나 태수가 끝내 효부를 처형한다. 우공은 효부가 진술한 공술서를 안고 관청에서 울다가 마을을 떠나버린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진다. 후에 신임 태수가 그녀의 누명을 벗기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주자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효부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마을이 가뭄이 되는 것은 효부의 억울함과 원통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 잘못된 판결을 내린 태수와 그녀의 죽음을 방관한 마을전체와 사회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이 이야기는 후에 원작극 『寶娥冤』의 탄생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 『김씨열행록』의 효부 김씨부인의 남편도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김씨부인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장을 하고 탐문수사를 펼치다 진범을 알아내고, 이윽고 계모와 그의 아들은 처벌된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김씨의 열행을 칭송하고 포상까지 한다. 그러나 후에 시아버지의 첩 화씨가 김씨를 모함하려고 하자, 그녀의 여종 옥매는 김씨를

22) 『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 큰 죄로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을 이른다.

23) 唐于闐國三藏沙門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 觀衆生業緣品第三 참조.

위해 화씨를 독살하려고 한다. 그러나 뜻밖에 시아버지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게 되자, 화씨는 김씨에게 ‘시부 살인죄’의 누명을 씌어 고소한다. 이에 김씨는 하옥되고, 옥매는 상경하여 황제에게 억울함을 알린다. 황제는 신하 정인충을 보내 재심(再審)을 하게하고, 이윽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화씨는 교살된다. 황제는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 줄 뿐 아니라, 효열부인에도 봉한다. 그리고 여중 옥매의 죄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석방한다.

동해효부, 김씨처럼 지극한 효성을 실천하였던 여성들이 ‘시부모살인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한 이러한 효부들 주위에는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있음으로 결국 누명을 벗고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시아버지를 죽게 만든 김씨의 여중 옥매에 대한 석방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옥매가 처벌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황제로부터 직접 ‘충비정여문’까지 하사받는 모습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을 위해서 좋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봉건적 신분사회의 한계와 더불어 주인에 대한 의리는 때로는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근대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부정 (不貞)

韓·中 봉건사회에서 효(孝)가 남녀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가치관이라면 열(烈)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윤리규범이었다.²⁴⁾ 양국 모두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정절을 잃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논리로 여성들에게 정절은 죽음으로 지켜야하는 중요한 가치로 세뇌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不貞)이라는 죄명은 여성의 명예, 자존심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 韓·中 문학작품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순결을 버리는 ‘훼절’ 행위, 나아가 제 3자에 의한 ‘훼절모함’까지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가. 훼절

청의 포송령의 『聊齋志異·太原獄』은 산서성 태원(太原)의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의 이야기이다. 행실이 나쁜 시어머니가 사내들과 간통하자, 이를 지적하고 막는 며느리에게 오히려 ‘간통죄’를 뒤집어 씌운다. 사내는 모진 고문에 자신과 며느리와 간통했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며느리는 집에서 추방당한다. 명판관 손종원(孫宗元)이 이 재판을 다시 맡게 되고, 손종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을 불러 칼과 돌로 정부(情夫)를 공격하게 한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내에게 원한이 사무친 며느리는 큰 돌과 칼로 사정없이 그를 공격하지만, 사내와 간통한 시어머니는 작은 돌로 가볍게 치기만 하고, 칼은 들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사내와 간통한 이가 시어머니임을 밝힌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정부는 곤장 30대의 처벌을 받는다. 이 작품은 간통의 주체가 젊은 며느리가 아니고, 늙은 시어머니인 특이한 경우로, 사람의 음욕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고, 또한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법에

24)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p.14.

저촉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선 후기 이시선의 『열녀홍씨전』의 과부 홍씨도 시아버지로부터는 총애와 신뢰를, 종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첩과 시동생 내외가 홍씨가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홍씨를 ‘간통죄’로 쫓아내려고 한다. 당시 과부는 국가와 마을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간통죄가 성립되기도 하였다.²⁵⁾ 홍씨는 심리를 받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결심한다.

“홍씨는 자결하는 것은 부질없이 악인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장려함이 될 뿐이므로, 반드시 심리를 받으러 나아가서 그 정황을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압송되어 중형 만제와 함께 간다.”²⁶⁾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만여 자에 이르는 진술서를 쓰서, 참소를 받아 흠을 입은 자신의 억울함을 서술한다. 그리고는 양반집 여인으로 추관 앞에서 옷을 벗어 자신의 가슴과 배를 보여주는 치욕을 겪으며 결백을 입증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소송은 인륜의 지극한 변고로, 만약 다른 허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제가 비록 수만 번 찢겨 죽더라도 즐겨 죄를 받겠나이다. 어찌 감히 시아버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억울함을 펴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 악인들이 쇠도 녹이는 입으로 시아버님의 마음을 속이고 그르쳐 망국한 말을 하여 저의 몸을 욕되게 하니 누명을 벗고 죽어 황천에서 불결한 귀신됨을 면하기를 바라나이다.”²⁷⁾

며느리가 자신의 정절을 의심하는 시아버지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효’와는 크게 상충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효와 열을 범한 자신을 결국 자결로써 처벌함으로 ‘궁극적인 효와 열’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녀’로서의 의무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한 슬픈 결말이기도 하다.²⁸⁾

태원(太原)의 과부며느리와 홍씨는 자신들의 정절모함에 강하게 저항했고, 홍씨는 죽음까지도 불사하였다. 한편 자신의 정절을 모해한 악인을 ‘살인’으로 직접 처단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덕무의 문집 『靑莊館全書』 卷20에 실린 『은애전(銀愛傳)』에서 18세 새색시 은애(銀愛)가 자신의 시누이 손자와 결혼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결혼 전과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절을 모해하는 소문을 퍼뜨린 노파를 18곳이나 칼로 찔러 살해한다. 은애는 ‘살인죄’로 구속되어 ‘목에는 칼을 쓰고 손에는 차꼬를 채이고 다리는 요에 묶여 있어 도’, 의연하게 전후사정을 자백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25) 『대전회통』 ‘姦犯’조 - 사죽인 부녀가 음욕을 자행하여 풍속과 교화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한 경우에는 간부와 함께 교수한다.

26) “洪氏知自載之徒爲姦姦自陷，必欲就理以白其情，被押而去，從兄萬濟與之偕行.”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27) “舅婦之訟 人倫極變 若係他累 妾雖萬萬磔死 甘心服罪 何敢抗舅自伸 而此則群姦鑠金之口 誣誤舅心 爲言罔極 扞蟻妾身 茲願一瀕而死 免作泉下不潔之鬼.” 『열녀설화의 재해석』, 앞의 책.

28) 김윤경, 『송사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사건대응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5, p.47.

“처녀가 무욕을 당하면 더럽히지 않아도 더럽힌 것 같습니다. 노파는 본래 창가(娼家)인데 감히 처녀를 무욕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²⁹⁾

‘적삼과 치마가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원래 색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녀의 절개에 감동받은 현감은 그녀를 사면해 주고 싶은 마음에 조정에 사건을 보고한다. 이에 조정대신들은 법의 엄정성을 들어 그녀의 유죄를 주장하지만, 정조는 법보다 윤리의식을 앞세워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무고함을 당한 것은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 그러나 은에 은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은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풍교(風敎)를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³⁰⁾

황제는 ‘정숙한 여인이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일은 지극히 억울함’이라 전제한 후, 자신을 음해한 노파를 살해한 정절과 기개를 높이 평가하여 그녀를 석방한다. 그리고 이 송사가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도내 여러 곳에 사건의 내용과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게시할 것도 지시하고 있다. 당시 유교윤리가 법집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의 여성들이 자신의 정절을 모함하는 상대를 살인하거나, 자신의 죽음까지 불사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에게 있어서 정절의식의 절대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³¹⁾ 이러한 이유로 고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사적복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부모를 대신한 복수의 행위와 여성이 정절을 위한 복수에는 다소 관대했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인 효와 열을 구현하기 위한 일시적 불효, 궤절의 행위와 심지어 ‘복수’, ‘살인’도 일부 허용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 불륜(不倫)

‘부정(不貞)’의 죄명은 기혼여성뿐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아가씨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혼인 전에는 ‘순결’해야 하고 혼인 후에는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하여 ‘정조’를 지켜야만 했다.

명의 풍몽룡의 『醒世恒言·李玉英獄中訟冤』에서 옥영과 동생들은 계모의 욕과 매가 끊이지 않는 암울한 생활을 한다. 계모는 전처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옥영과 동생들을 모해할 계획을 꾸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계모의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먼저 남동생을 독살한다. 이어서 다른 여동생들도 노비로 팔아버린다. 그리고

29) “室女受誣，不污猶污，嫗本娼家，敢誣室女，古今天下，寧有是哉?” 이해순·김경미, 『한국의 열녀』, 월인, 2002.

30) “貞女被淫誣，天下之切冤 … 然銀愛黿勉含冤至適人，方報怨則尤難矣，不宥銀愛，何以樹風教，特貸.” 『한국의 열녀』, 앞의 책.

31)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p.174.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옥영의 “영춘시(迎春詩)”와 “별연시(別燕詩)”를 근거로 옥영을 ‘연애 편지를 써서 사내를 끌어들이는’ ‘불륜죄’로 고소한다.

“나무문짝에 간혀 청춘을 적막하게 보내고, 느릅나무열매는 가득한데 빈한함을 달래지 못하네. 귀밑머리 드리운 옷의 반은 흙투성이, 들꽃은 어이하여 홀로 님을 피는가?”³²⁾

옥영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여 지은 시를 계모는 연정시(戀情詩)로 몰아, 옥영의 불륜의 증거로 주장하며, 양반집 체면을 위해 자살을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다. 이에 옥영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관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모진 매만 가한다. 옥영은 하옥된 뒤, 남 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계모의 죄행을 날날이 밝히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황제에게 전해지고 황제는 그 편지를 보고 三法司³³⁾에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三法司官은 계모와 그 오빠한테서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둘은 처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황제가 죄 없는 계모의 아들까지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가 옥영의 간곡한 간청으로 겨우 구명된다.³⁴⁾ 이러한 옥영의 배다른 어린동생의 구명호소는 『장화홍련』의 장화홍련의 원혼이 아버지 배좌수 방면 요청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가정을 파괴시키는 계모의 잔인한 악행과 대비해서 가정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녀들의 선한 이미지를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송사과정이 황제에게까지 알려지고, 재판의 진행과정에 황제가 개입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대해서 본다는 것이다. 봉건사회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와 임금에 직접 ‘계모의 전처자식 학대 및 살해’라는 전형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또한 교훈으로 삼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제 처첩사회에서 후처, 계모와 전실 자식들의 갈등은 비밀비재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전실 자식들이 고통 받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醒世恒言·李玉英獄中訟冤』, 『장화홍련』 두 작품 모두 계모가 전처자식들 특히 딸들을 죽이고자 할 때는 주로 ‘불륜’, ‘부정’의 죄명을 씌우고 있다. 옥영, 장화처럼 착한 효녀이며,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들에게는 ‘순결하지 못한’, ‘부정’한 ‘불륜’의 죄명이 가장 치명적이고 악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 살인하지 않고도, ‘자결’을 종용할 수 있는 가부장적 명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차이는 장화가 생전에는 저항하지 못하다가, 원혼으로 변한 뒤에야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옥영은 죽지 않고 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한 봉건윤리 속에 간혀 있던 조선 여성의 모습에 비하여 법률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유교 외에도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사회의 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명나라 사회와 여성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32) “柴扉寂寞鎖殘春，滿地榆錢不療貧。云鬢衣裳半泥土，野花何事獨撩人。”馮夢龍，『醒世恒言』，三秦出版社，1993.

33) “三法司”즉 명나라의 사법기관으로 刑部, 大理寺, 都察院을 말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 三法司가 연합으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34) 장연호, 「장화홍련과 <李玉英獄中訟冤>의 比較研究」, 『한국문학논총』, 46, 2007. p.130.

2) 개인적 차원의 범죄

앞의 작품 속 여성들이 ‘효’, ‘열’의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송사를 당하는 여성들이라면, 이외의 다양한 동기에 의한 살인, 범인방조 등의 죄명으로 소송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의 범죄가 사회윤리도덕 구현에 바탕을 둔 범죄행위에는 韓·中 사회 모두 관용을 베풀고, 칭송까지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 살인

원잡극 이잠부(李潛夫)의 『灰蘭記』는 구약성경의 솔로몬의 재판과도 비슷한 서사로, 후에 독일의 브레히트에 의해 『코카서스의 백묵원』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한 작품이다. 기녀출신의 장해당은 첩으로 들어와 아들까지 낳아 남편 마원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에 본처는 정부(情夫)와 찢고 남편을 살해하고, 장해당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어 쫓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재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게 되자, 장해당의 아들까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우기며 뺏으려고 한다. 마부인에게 매수된 아전들은 장해당을 압송하고 그녀를 ‘살인죄’로 하옥시킨다. 장해당의 오빠가 포증³⁵⁾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再審)을 요청한다. 본부인은 이미 산파를 비롯한 동네사람들을 모두 매수하여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며, 아이의 친모가 자신임을 증언하게 한다. 어느 누구 한 명도 장해당이 아이의 친모임을 증언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명판관 포증은 고민한다. 그리고 땅에 석회로 원을 그려 아이를 안에 두고, 두 여인으로 힘껏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면 자신의 아이로 인정한다고 한다. 이에 본부인은 힘껏 잡아당기고, 친모인 장해당은 아이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차마 잡아당기지 못한다.

“열 달 동안 배 속에서 기르고, 3년 동안 젖을 먹여 기른 친자식인데. 겨우 다섯 살 난 아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아이는 반드시 다칠 것입니다.”³⁶⁾

이에 포증은 ‘법률은 멀리 있지만, 인정은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친모 장해당에게 아이를 돌려주며, 그녀의 ‘살인’ 누명도 벗겨준다. 또한 기지로 마부인과 정부(情夫)를 서로 이간질시켜 살인을 자백하게 하고 처형한다. 또한 뇌물로 오관한 아전들도 곤장 100대를 쳐서 오지로 내보낸다.

명의 풍몽룡의 『警世通言玉·堂春落難逢夫』의 기녀 옥당춘은 왕공자(王公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후에 옥당춘이 어려울 때 그가 보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王公子가 돈이 떨어져 기생어미에게 쫓겨나 거지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옥당춘의 물질적 도움으로 과거에 응시한다. 이후 옥당춘은 왕공자가 과거를 보러 간 사이 기생

35) 중국에서는 송나라때 포증(包拯)이라는 명판관이 있었고, 이 후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원잡극, 명청 소설들 출현하며, 수많은 명판관으로 여성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위기에서 구해준다. 包拯은 작품속에 사 거의 신격화된 인물로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였다.

36) “十月懷胎。三年乳哺。嘔苦吐甜。煨乾避濕。不知受了多少辛苦。方纔擡舉的他五歲。不爭為這孩兒。兩家硬奪。中間必有損傷。” 范嘉晨 評注, 『元雜劇包公戲評注』, 齊魯書社, 2006.

어미의 꼬임에 속아 심홍의 첩이 된다. 심홍의 아내 피씨(皮氏)가 간부(姦婦)와 짜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남편 심홍과 옥당춘을 독살하려다가 심홍만 죽게 된다. 이에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옥당춘을 ‘살인죄’로 고소하며, ‘남편의 목숨을 값아 달라’고 호소한다. 뇌물을 받은 관리는 옥당춘을 억지로 자백시켜 사형판결을 내리고 중앙태원(中央太院)으로 이송시킨다. 이때 진사에 합격해서 옥당춘을 찾던 왕공자가 재심(再審)을 맡아 그녀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겨주고, 피씨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관리는 관직을 뺏기고 하옥된다. 옥당춘은 왕공자의 첩이 되어 본부인 유씨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결말을 맞는다.

위의 두 작품 모두 첩의 남편살인누명관련 송사이며, 가해자가 송사를 제기하는 ‘무고(誣告)’에 해당된다. 이러한 송사 뒤에는 대부분 뇌물을 받은 부패한 탐관오리가 등장한다. 또한 배후에는 본처와 간부(奸婦)가 공범으로 나오는 정황도 포착된다. 이것은 여성 혼자서의 범행이 결코 쉽지 않고, 또한 남편 사후 여성의 독립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았던 가부장사회에서 다른 남성의 존재, 즉 공범자가 있었던 경우 가능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결말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고난을 겪은 후, 청렴한 판관의 재심을 통해서 누명을 벗게 된다는 것이다.

본처의 부정, 음란함은 당연히 단죄 받아야 하지만 이 소송의 이면에는 처첩제도의 잔인함,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본처의 아픔, 한편 남편의 죽음 이후로는 집 안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했던 첩의 열악한 인권,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이 집안 재산계승이 가능했던 가부장적 법률제도의 사회,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당시 여성들의 애환들이 깃들여 있다. 결국 봉건사회 가족제도의 제도적인 문제는 철저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여성들에만 봉건적 윤리의식을 내세우고 강요한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범인은닉³⁷⁾

가. 부모자식간의 대신범(代身犯)

원잡극 관한경의 『蝴蝶夢』은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을 항의하다 토호를 죽인 세 아들의 살인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자 하는 왕씨 부인이 나온다. ‘살인죄’로 개봉부로 압송된 왕씨 부인과 세 아들은 포청천(包青天)의 심문을 받는다. 왕씨 부인은 아들들 대신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자백을 한다.

“모두 세 아이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당시 황친 갈표가 먼저 원네의 남편을 때려 죽여서 원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에 분노가 일어 싸우다가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포대제 말한다) “헛소리! 서로서로 인정하는 걸 보아하니 서로 작당을 한 것이리라.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은 목숨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장천아, 매우 처라!”³⁸⁾

37) 현대 형벌체계에서 범인은닉죄는 국가적 법익, 즉 범인의 발견과 소추라는 국가기근을 방해하는 범죄라 할 것이나, 고대소설속의 범인은닉이란 국가형벌체계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토대로 구성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이를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 분류한 것이다.

38) “並不幹三個孩兒事。當時是皇親葛彪先打死妾身夫主，妾身疼忍不過，一時乘忿爭鬥，將他打死。委的是妾身來! (包待制云)胡說! 你也招承，我也招承，想是串定的。必須要一人抵命。張千，與我著實打者!” 范

왕씨 부인의 거짓자백은 곧바로 들통이 나고, 세 아들을 모두 희생시키지 말고 한 아들만 희생시키자는 판관 포청천의 권유에 따라 왕씨 부인은 셋째 아들을 내 놓는다. 포청천은 왕씨 부인이 후처임을 알고 필경 셋째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셋째아들만 그녀가 낳은 아들이고, 위의 두 아들들 모두 전처의 소생이었다. ‘어진 계모’ 왕씨부인과 효심이 깊은 셋째 아들의 행동에 감동받은 포청천은 기지를 발휘해 두 모자(母子)를 살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는 봉직을 내려주고, 왕씨 부인은 ‘현덕부인’에 봉해진다.

“큰 아이는 조정에 나가 봉직하고, 둘째는 관대를 착용한 영예로운 몸이 되거라. 석화는 중모 현령으로 삼고, 어머니는 현덕부인에 봉하노라. 나라에서는 의로운 사내와 절개 있는 부녀를 중시하며 효자와 그 후손을 더욱 아끼노라. 오늘 벼슬을 더하고 포상을 내리니, 일가는 궁궐을 향하고 성문에 감사 드러라.” 39)

비록 계모이지만, 봉건예교를 따르는 왕씨 부인의 행동은 당시 사회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계모’의 형상이었다. 또한 세 아들의 살인은 ‘효’의 구현, 왕씨 부인의 거짓증언은 자신의 자식과 진실 자식까지 포함한 자애(慈愛)를 기반으로 하는 ‘현모(賢母)’로서의 도리였기에 그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 사회적 칭송과 포상까지 받았던 것이다.

나. 부부간의 대신범(代身犯)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옥낭자전』의 옥랑은 ‘살인교사죄’로 하옥된 남편을 구하고자 동분서주한다. 다른 방도가 없자 결국 자신이 남장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남편을 빼돌리고 자기가 대신 옥에 갇힌다.

“감히 남복을 환착하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어 보냈사오니, 국법에는 죽사울 죄를 지었사오나 죄첩의 의리에는 마땅하온지라, 죽사와도 여한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속히 형벌을 밝히소서.” 40)

옥랑 스스로도 이미 ‘국법을 어긴’ 자신의 죄와 법의 준엄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아에서도 ‘이는 비록 옛날의 烈女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 지니, 진실로 아름답고 희한한 일’이라고 조정에 알린다. 결국 옥랑의 사연을 들은 임금은 ‘만고에 드문 일’이라 칭찬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

“시업이 비록 국법을 범하되 그 지어미의 아름다운 절행으로써 그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어 널리 포양(褒揚)하겠노라.” 41)

嘉晨 評注, 『元雜劇包公戲評注』, 齊魯書社, 齊南, 2006.

39) “你本是龍袖嬌民, 堪可爲報國賢臣. 大兒去隨朝勾當, 第二的冠帶榮身. 石和做中牟縣令, 母親封 賢德夫人. 國家重義夫節婦, 更愛那孝子順孫. 今日加官賜賞, 一家門 望闕沾恩.” 范嘉晨 評注, 『元雜劇包公戲評注』, 齊魯書社, 齊南, 2006.

40) 金起東·全圭泰 編, 『玉娘子傳』, 『韓國古典文學』, 서문, 1984.

옥랑의 절행으로 살인교사죄로 수감된 남편 이시업이 무죄 석방되고, 벼슬까지 받게 되는 것은 옥랑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열’의 실천의 확산을 기대하였던 사회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시 실제로 남편이 투옥되었을 때, 부인들이 상언(上言)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헌부나 궁궐 앞에서 호곡하기도 하고, 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감형 혹은 석방을 해 줌으로 여성의 절행과 순종을 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²⁾ 결국 이 작품 속에서 송사의 절차는 옥랑자의 절행을 드러내고 칭송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고, 법의 엄정정보다 법의 윤리의식이 우위에 있었던 조선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⁴³⁾

또한 옥랑이 송사를 통해 남편을 구하고자 하지 않고, 남장을 하고 직접 옥으로 가서 남편 대신 하옥되고자 하는 것은 부패한 관아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소송을 다소 꺼리는 조선시대의 여성의 일면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시대에 이미 『大明律』을 제정하여 법률을 정비하였고, 법 평등이라는 원칙아래 여성들의 법률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직접 관아에 억울함을 고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에 비해 조선시대 여성들은 뿌리 깊은 남존여비의 전통 관념으로 인해 법률생활은 다소 경직되었고, 심지어 ‘소송’을 다소 꺼리는 일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⁴⁴⁾

이 장에서는 여성이 송사를 당하는 경우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고대 韓中사회에서 범죄가 사회·윤리적 차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적발과 처벌은 매우 가혹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되었던 작품을 통해서 강력한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부여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효라는 큰 죄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열(烈)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또한 불륜에는 모함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늘 유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범죄에서도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조차도 누명이 존재할 가능성, 공범의 개입과 형사절차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범인은닉같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개인적 침해마저도 부모자식간의, 부부간의 정(情)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韓中 고대사회의 ‘문학적 비범죄화’(Literary De-criminalization)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으로 한중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들의 송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41) 金起東·全圭泰 編, 『玉娘子傳』, 『韓國古典文學』, 서문, 1984.

42) 정세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 연구」, 『여성학논집』, 5,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88, p.80

43)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p.177.

44) 장연호, 『한중 송사문학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6, p.113.

韓·中 두 나라 모두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대 韓·中 양국의 송사과정에서 후처, 계모는 원고 혹은 피고를 막론하고 악의 주동자로 대부분 묘사되고 있다. 중국 호접몽의 왕노파가 아주 예외의 경우지만 대부분의 송사과정에서 전처는 현모양처, 후처 혹은 계모는 ‘재물을 탐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혈연중심주의와 이기심으로 인한 신구성원 소외, 비합리적인 상속제도, 무능한 가장 등의 비합리적인 가족제도가 만들어 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양국 모두 남편살인에는 또 다른 남성인 ‘정부(情夫)’가 등장한다. 범죄의 성립과 독립적인 삶 자체가 힘들었던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양국 모두 봉건유교사회의 근간이 되는 ‘효’, ‘열’, 그리고 하인으로서의 주인에 대한 ‘충’의 구현을 위해서 저지르는 경미한 범죄부터 심지어 살인까지도 어느 정도 용서해 주고, 심지어 칭송하기까지 한다. 즉 양국 모두 법의 엄정성보다 법의 윤리의식이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韓·中 두 나라의 작품에는 일정한 차이도 존재한다.

첫째, 중국작품에서는 여성이 다양한 죄명으로 피소되지만, 한국작품에서는 ‘부정’의 죄명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계모가 전처자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의 죄명이 나온다. 이는 ‘열녀’를 지향하고, 수많은 열녀를 탄생시켰던 강력한 조선사회의 유교적 사회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작품에서는 여성의 ‘정념적 복수’ 형태의 송사가 자주 등장하나, 한국작품에서는 정념적 동기에 의한 송사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여성이 동일한 가부장적인 전통 하에 놓여 있으면서도 한국에 비해서는 보다 분쟁의 자주적인 해결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뒤집어보면 그 시대 한국 여성들의 삶이 봉건윤리와 사회제도로 인해 보다 더 억압적이었던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셋째, 중국작품 속에서는 대명률(大明律)등의 법률절차가 나름 정착되어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여성들이 적극적인 송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다수 보이지만, 한국작품에서는 ‘송사’보다는 소극적인 수인(受忍)의 모습으로 보다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교적 영향이 보다 순수하게 강한 한국에서는 유교의 이념을 따라 타율적인 강제력에 호소하는 분위기보다는, 자율적인 수치심에 근거하여 분쟁을 처리하려 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韓·中 두 나라 여성들의 분쟁의 주원인이 되었던 여성의 인격을 공격하였던 처첩제도, 무자비하게 강요된 효의 구현과 열의 완성, 전처소생과 계모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족 및 혈연제도 등은 모두 봉건적 가부장제도의 산물이었다. 이런 제도자체의 문제점 개선은 철저히 도외시하고, 여성들은 그 속에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분쟁으로 끊임없이 고통 받아왔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공정한 법에 의한 ‘송사’제도는 어쩌면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송사제도로 여성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여성들을 난도질하는 가부장제도의 비수(匕首)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韓·中 고전문학속의 여성이 당사자로 휘두른 ‘송사’라는 칼의 이러한 이중성, 즉 양날의

칼로서의 송사제도는 봉건제도라는 어두운 보자기에 갇혀 지내던 여성에게는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칠혹 같은 억압의 한 단면을 찢어내는 은장도(銀粧刀)였음을 그 누구도 의심치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한경 지음, 하경심 옮김, 『두아 이야기/악한 노재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 김규태 편, 『韓國古典文學大系』, 명문당, 1991.
- 김윤경, 『송사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사건대응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5.
- 김명구·윤애선, 「복수의 다원화」, 『중국어문논총』, 35, 2005.
- 김혜경, 『요제지이』, 민음사, 2002.
-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 오문희, 『삼언의 복수고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 제38집, 2011.
- _____,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자살」, 『중국학』, 제47집, 2014.
-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 이혜순, 「열녀의 立傳意識과 그 사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 월인, 2002.
- 장연호, 「중한 송사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006.
- _____, 「장화홍련과 <李玉英獄中訟冤>의 比較研究」, 『한국문학논총』, 46, 2007.
- _____, 『한중 송사문학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6.
- 정세화,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 연구」, 『여성학논집』, 5,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88.
- 천대진, 『삼언의 비극작품 시론』,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최은영, 『‘三言’ 공안소설의 서사화 과정』,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05.
- 한국중국어국연구회 편역, 『중국어국선집』, 學古房, 1995.
- 範嘉晨 評註, 『元雜劇包公戲評註』, 齊魯書社, 2006.
- 蘇寰中 外, 『中國戲曲選』, 人民文學出版社, 1985.
- 臧國書, 「<王嬌鸞百年長恨>男主人公死亡敘事的審美差異」, 『重慶理工大學報』, 券26, 2012年第7期.
- 張 庚·郭漢城 主編, 『中國戲曲通史』, 中國戲劇出版社, 1981.
- 浦松齡, 張友鶴 校, 『聊齋誌異』, 上海古籍出版社, 1978.
- 馮夢龍, 『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논문초록】

키워드	국문	여성, 송사(訟事), 한중(韓中), 고전문학, 비교문학		
Key Words	영문	Woman, Litigation, East Asian, Ancient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div><div>‘Woman’s Litigation’ in East Asian Ancient Literature</div><div>Lee, Kyung-Mi</div><div><p>This article wants to review classical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in which women either file lawsuits or are also sued. In most cases, when a woman is sued or subjected to a lawsuit, if the protagonist is a filial daughter, virtuous daughter or lady, the case usually ends with a happy ending, material reward and social acclaim. This shows a side of the feudal society of ancient Korea and China, where the ethics of the social norm prevailed over the strictness of the law through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in spite of good intentions and good behavior, unfairness may end up with resentment unresolved. This is also an example of the limitations of society at the time when the legal process of litigation is a sort of way to embodying social justice, but the opportunity cannot be fully guaranteed to women in a feudal society of male-dominated system. Some women also publicly appeal to society and seek to resolve their grievances through retrial with becoming ghosts. This is because it enabled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and even the inner dignity of Western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rder and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through punishment by public law enforcement.</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경미 / 李京美 / Lee, Kyung-Mi		
	소 속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Em@il	jingmei@gdsu.dongseo.ac.kr leejingmei@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0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